

-윤부열

EyE Artist\_Yoon Star

## Profile



## 윤 부 열 Yoon bu-yeal

\_ 출생 : 1993년, 광주광역시

P : 010.8592.2656 M : yoonstareye@naver.com

◎ : yoonstar\_eye ▣ : 미고남

\_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_ 2024. 광주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스

\_ 2023.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지원센터 레지던스

## Awards

\_ 2019. 제 69회 조선대학교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 회화상  
(조선대학교 광주지부)

\_ 2013. 제 29회 청소년예방선도 원진서화백일장 - 금상  
(법무부법사랑연합회 광주지부)

## <개인전>

- \_ 2025 빛고을시민문화관 "Life : Time-Line" (광주)
- \_ 2025 양림미술관 "It's About Time" (광주)
- \_ 2025 "삶의 향" 초대전 (spotlight cafe, 담양)
- \_ 2024 전대박물관 "劃\_ 향, 한그루" 초대전 (전대역사관, 광주)
- \_ 2023. 민아트갤러리 "선으로 쌓은 삶의 굴곡" (광주)
- \_ 2022 금호 갤러리 "시간의 - 선"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  
"Time Line" (Youngtist Gallery, 담양)
- "삶의 교선" (Spotlight cafe, 담양)



## <단체전>

- 2025 예술의전당 청년미술상점 아트페어 (한가람미술관, 서울)  
에쁘끄 6인 조명전 "RE: Informel" (시립미술관분관, 광주)
- 2024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少.素.笑 (소.소.소)"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예술의전당 청년미술상점 아트페어 (한가람미술관, 서울)  
청담 "영역의 모부" (아트워드미, 서울)  
영-호남 교류전 "산 넘고 물 건너 만나는 달빛 하모니" 展 (양림미술관, 광주)  
광주 청년미술제 "도시의 유목민"展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광주 청년미술제 "섹션-1"展 (갤러리충장22, 광주)
- 2023 예술의 전당 청년미술상점 홈커밍데이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1회 작품판매전 일상페어 (민아트갤러리, 광주)  
기획 "나의 해방일지" (Spotlight, 담양)
- 2022 예술의전당 "청년미술 상점" (한가람미술관, 서울)  
광주문화재단 "디어마이위크" (민아트갤러리, 광주)  
예술 산책4 "아트슈퍼 마켓" (해동문화예술촌, 담양)  
"작업라운지: 사 \_ 이" (주안미술관, 광주)  
LapiA Mall "작가미술장터" (팔복예술공장, 광주)
- 2021 "ACE fier"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작가미술장터 "LOCAL ARTS GWANGJU" (광주극장, 광주)
- 2020 담양 생활 속 예술 단체전 "더 담" (담양)  
"Drawing Workshop" (Gallery YIAN, 대전)  
제 1회 "GSAF" 광주 소셜 아트페스티벌 참여 작가 (광주시민회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 "뽕.뽕.뽕"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
- 2019. 아트광주18 신진유망예술가 공간지원전 "volum up"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 \_ About Bu-yeol



\_일찍이 삶을 닫으신 아버지. 훌로 치열한 삶을 보내오신 어머니.  
춥고 어둡던 나날들 속에서 '인연'은 차갑고 뜨거우며 달콤하고 씹쓸했습니다.

\_삶과 삶이 만나고 눈빛과 눈빛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저는 단단해지고 닳았으며 부서지고 휘었습니다.  
때로 시린 시선에 마음 졸이고, 텅 빈 인사에 무색해지더라도

여전히 저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실 아버지를 그리며 봇을 듭니다.  
작은 도화지에 너른 들판을 그리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봇을 듅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아버지의 "눈길"과 함께  
이제는 굳세고 가냘픈 어머니의 손짓과 함께

조그맣던 저는 "한 그루 나무"처럼 조금씩 성장해왔습니다.  
제게 있어 그림은 투정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감정의 흐름과 시간의 연속을 드러냄에 있어  
'선'은 처음과 끝, 지속과 단절을 담아내는 회화의 언어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이어서 가장 예술적인 선.  
인연을 끈이라 하듯, 운명을 실이라 하듯  
가장 인간다운 작품은 '선'에서 그려지지 않을까요..



-detail

Dream<fairy1>  
90.9x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향<회상>  
162.2x130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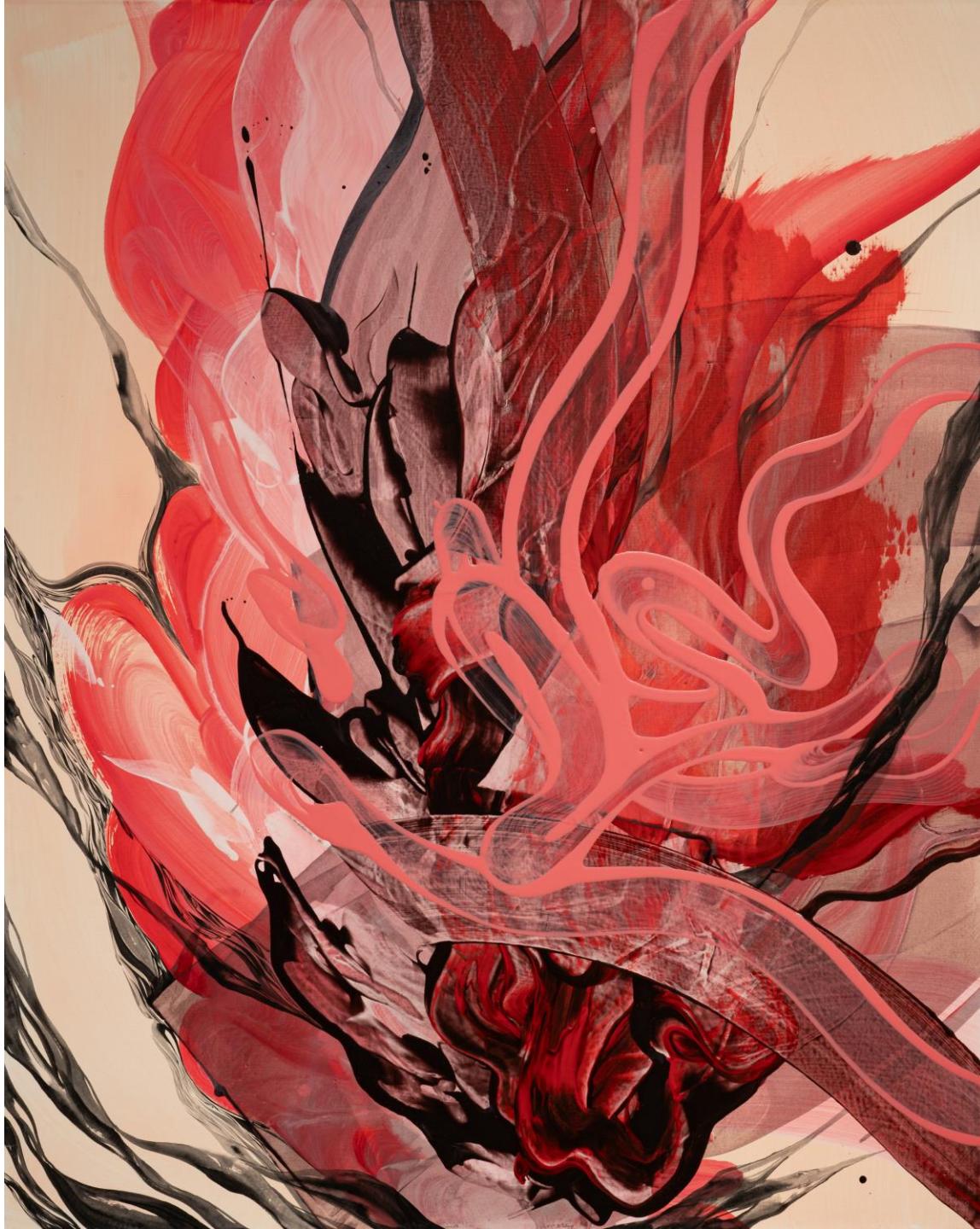
향<시원1>  
90.9x65.1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향<부귀>  
90.9x65.1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향<꽃>  
90.9x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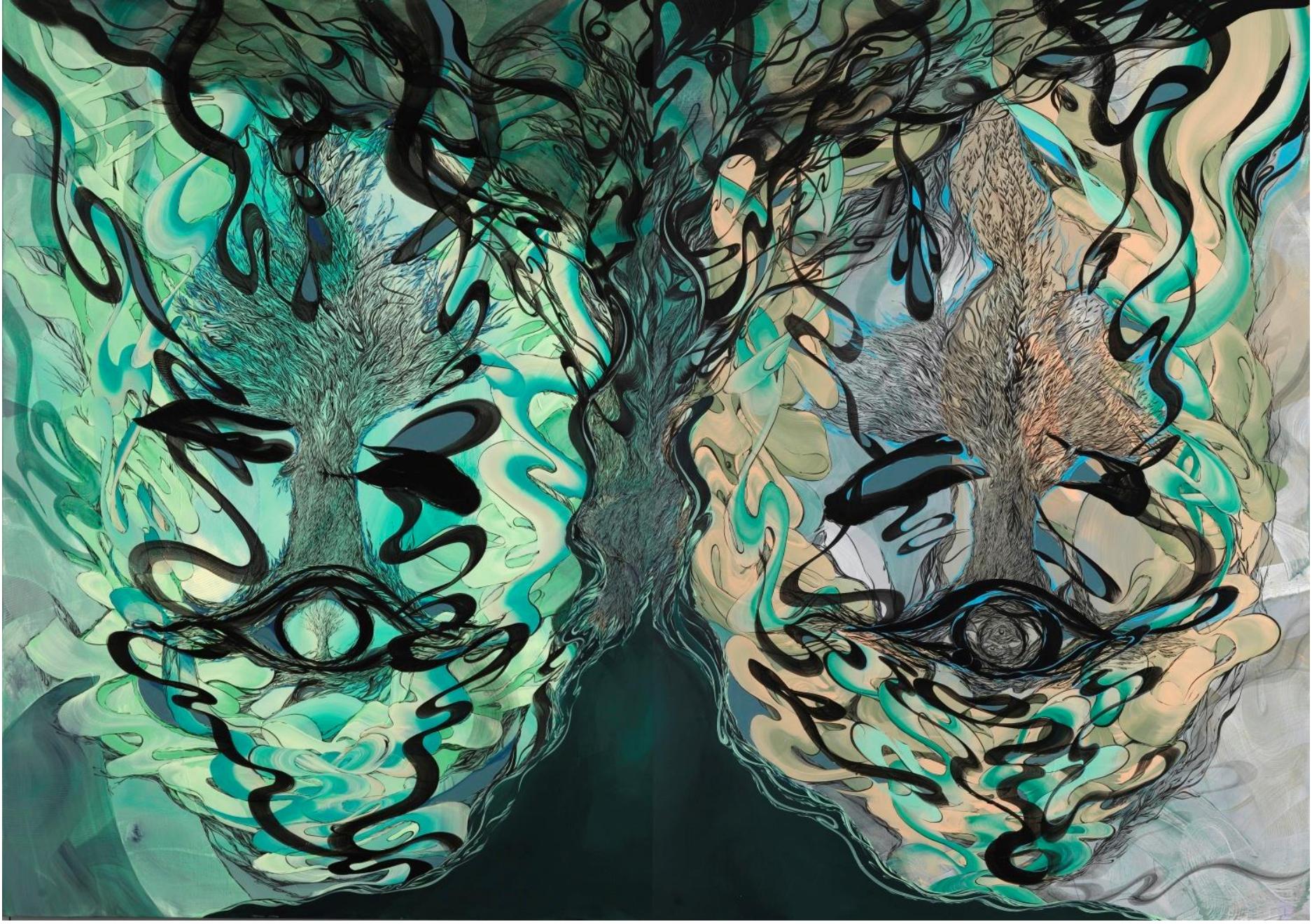


향<가시>2  
90.9x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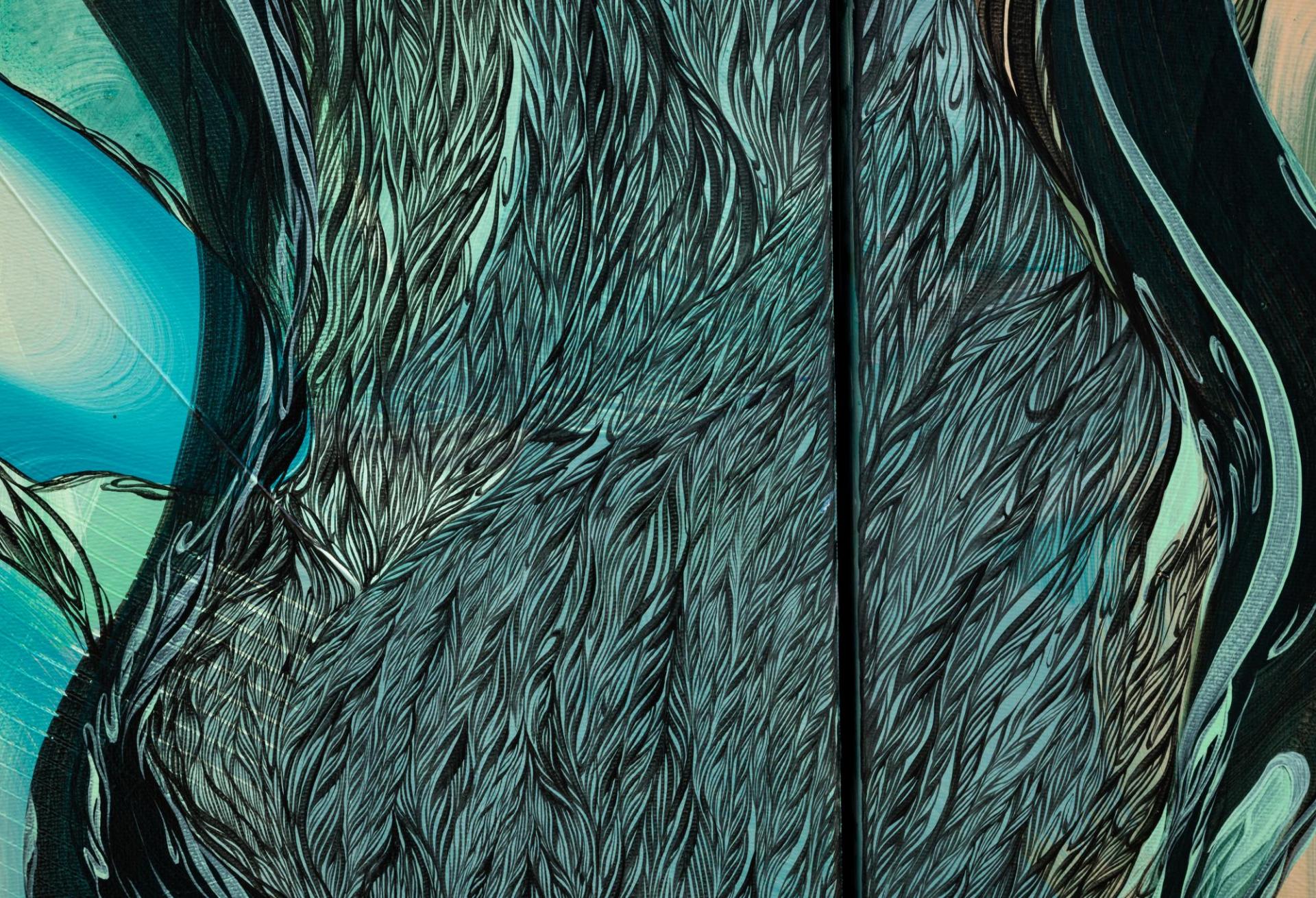
‘선’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예술적인 매질입니다. 선은 곧게 나아가고 굴곡지게 휘어지며, 개인의 감정을 묘사하고 우리의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세한 선의 움직임들을 따라가고 모아가다 보면, 때로는 가시와도 같은 아픔이 되고, 때로는 햇살과도 같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선’은 저의 손 끝에서 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선의 모습은 마치 훌러가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곧게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정적이지만, 완만하게 꺾일 수도 있기에 자유롭습니다. 고집스럽고 황량했던 초기 작업의 선들은, 이제는 부드럽고 풍요로운 선의 형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달라지게 될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고 불안하며 기대됩니다.

‘선’이 쌓여나가는 작업의 과정은 한 인간의 자아를 촘촘히 완성해나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선은 획의 끝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선을 만나 또다시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선으로 형상화된 작가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걷는 과정에서,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고 위로받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선(거울의 숲), 193.3x260.3cm, acrylic on canvas, 2024



시간의선<거울의 숲>-detail



시간의 선 (팽창)  
193.3 X 130.3cm  
acrylic on canvas  
2023



행복 <1>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2



행복 <2>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2



행복 <3>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2

\_예술, 삶의 얕하고 설 킴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내면

그림의 시작은 작은 호흡에서 비롯하고  
선의 연결은 쌓여가는 자아의 완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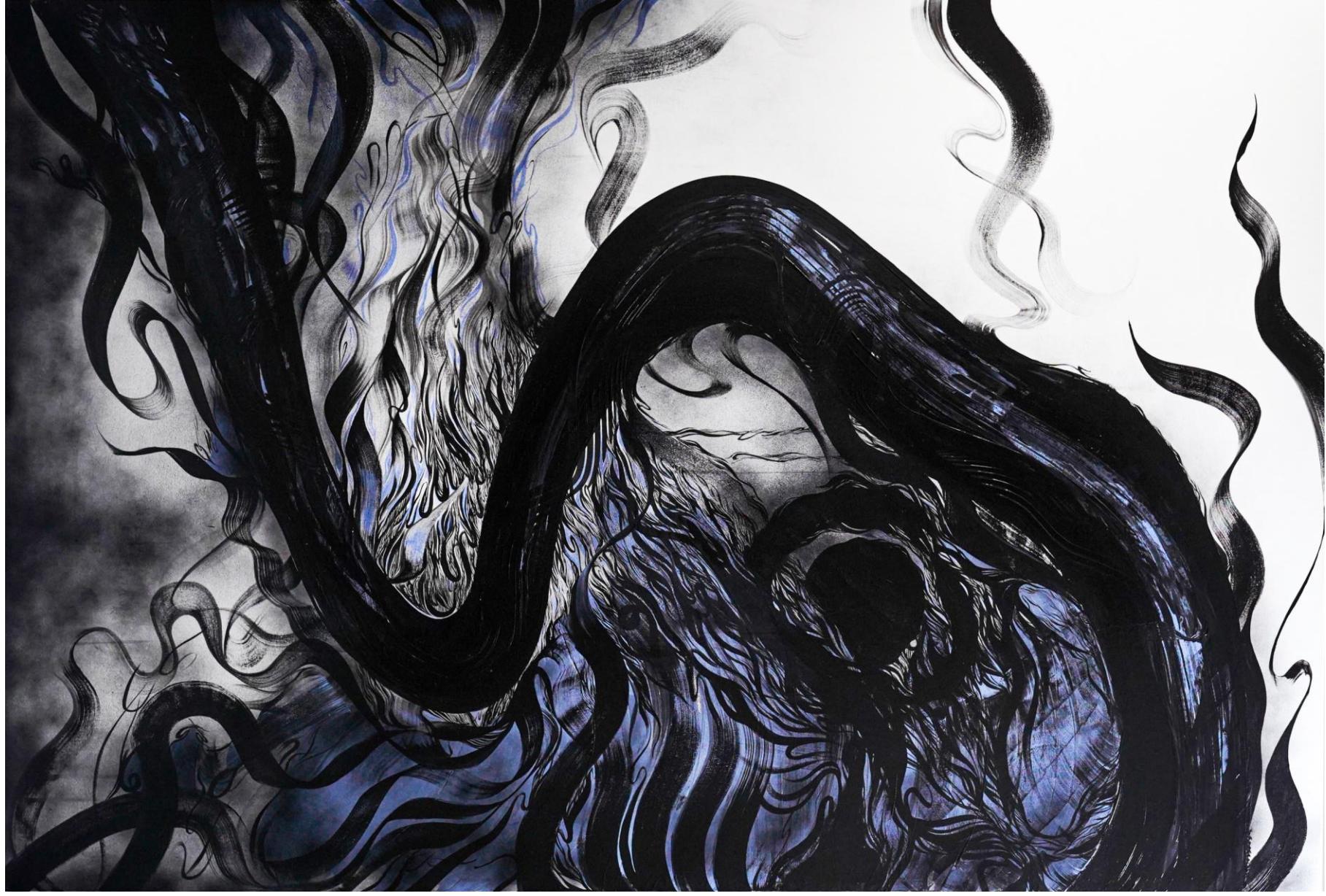
흑야로 가득한 삶 속에서도 따스한 눈길과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되새기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작품에 마음을 담아냅니다.

\_선이란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한 점, 한 점들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 말해 작업에 보이는 많은 선들은 점들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경각심 / 162.2x260.6cm / acrylic on canvas / 2021



시간의 선 <설장>  
193.9x130.3cm  
acrylic on canvas  
2021



시간의선 <탈피>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1



흰머리  
90.9x65.1cm  
acrylic on casvas  
2021



absolute Boundary / 가변설치 / Acrylic on canvas / 2019



경계<2>  
162.2 X 130.3cm  
acrylic on canvas  
2019



경계<1>  
162.2 X 130.3cm  
acrylic on canvas  
2018



잊지못한 장면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1